

새로 써야 할 공간의 역사

History of Space has to be Rewritten

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by Park Yean-Shim

금요일의 늦은 오후, 필자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요즘은 설계하는 사람이나, 은행창구의 여직원이나, 음악하는 사람이나, 신문사 기자나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21세기 산업의 디지털화는 사람의 행동양식조차 통합하는 힘을 가졌다.

여기 쓴 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로써 새로운 책, 공간의 역사(마가렛버트하임, 박인찬 옮김, 생각의 나무사, 2002)를 읽고, 또 최근에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여러가지 디지털공간에 대한 의문들을 짧은 단상들로 제시해 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출판이라는 한계에 의해 문자만 전달될 뿐이지만 컴퓨터언어인 HTM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화면에 영상을 띄우고 음악도 삽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멀티미디어로 전달할 수 있다(이곳이 인터넷상이라면 적당한 영상과 함께 음악은 Dave Matthews 의 Space Between을 깔았을 것이다).

The Space Between 컴퓨터의 연결망은 책상위에서 세계로 퍼져나간다. 연결고리는 우스꽝스럽게 초월적인 자세를 취한다. 가상은 거짓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에 우리는 즐겁게 지배당하고 있다. 요령은 리듬과 타이밍. 그것이 자유라고 서로에게 권하고 있다. 그것이 새 세상을 가져왔다고 흥분하고 있다. 인스톨하기만 하면 징~하는 소리와 함께 그 세상이 열린다고 잠시 착각한다. 전화가 처음 발명됐을 때는?

The Space Between 창문의 뿌연 우윳빛 유리에 저녁 해에 비친 가로수의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거리는 영상을 본다. 그와 동시에 나는 눈앞의 컴퓨터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훈언니가 집안의 거실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실의 창문을 통해 같은 해가 오렌지카운티의 황토 언덕위로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나는 양쪽 끝의 항상 열려있는 쌍방향 전자창 두개를 포개어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공간을 밀착시킬 때 나타나는 매개공간에 있는 셈이다.

The Space Between 창에서 멀리 떨어진 시간대의, 인접한 환경을 비추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창과 병치시키면 우리는 밤과 낮, 겨울과 여름을 대비시킬 수 있었다. 물리공간과 사이버공간에 이동의 개념이 부팅되면,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 육체와 유동하는 전자적 확장자의 건축무대막의 레이어는 점점 복잡하게 겹치고 꼬이고 혼

합되어간다. 역마살이라는 것은 인터넷서핑에도 적용되는가?

The Space Between 시간, 장소, 행위가 일치해야 하는.. 건축공간과 경험의 고전적 통합은 어디로 갔는가? 서로 스치고 지나가면서 사귀던 이웃들이 이제는 잘 알긴(아바타) 하는데 잘 모르는(얼굴) 사이인 '서로 잘 아는 타인 Familiar Stranger' 이 되어가는 것은? 자기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이 머리속에 넣고 다니는 골목길, 표지판이나 안내문처럼 한 도시를 정겹고 이해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매력포인트의 기억들은? 도시이론가 케빈 린치의 마음속의 지도는 무엇으로 대체되는거지?

The Space Between 하늘아래 새것은 없다? 무한 복제시대인 것이다. 클릭 몇번이면 모든 것이 내 컴퓨터안에 고스란히 떠오르는 때다. 커서까지 꺾뻐이면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인용했다느니, 혼성모방이니,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차라리 애교다. 디지털의 복제 기능은 무차별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제 모든 창작은 '마지막 남은 수공업' 의 지위를 버리고 있는 중이다. '창조' 와 '모방' 과 '복제' 의 구분은?

The Space Between 디지털 공간은 이전의 공간의 역사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 그것을 마거릿 버트하임이 주장하듯, 중세인들의 종교관과 거의 동일한 공간관이라는 정신적인 공간, 실체없는 공간, 육체없는 정신인 것이다. 빅뱅에 의해 생긴 우주의 끝없는 팽창처럼 계속 늘어나는 디지털 우주, 그 내부로의 여행, 순전히 물질적인 관점에 의해 삭제돼 버린,.... 공간 없는 장소,.. 우리는 요즘 그곳에서 마치 강시들 처럼 서성이고 있다.

The Space Between 그렇다. 마치 강시들처럼. 미국의 IT산업은 주로 인도쪽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인도인의 언어적 능력과 수학적 머리뿐만아니라 시간대를 이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낮동안에 그들이 진행시켜놓은 프로젝트를 퇴근하면서 인도쪽으로 던져놓으면 그때 출근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간적 차원에서 다른 공간적 차원에서의 바톤. 그런 시간대와 공간적 교차점에 우리는 서있는 것이다.

The Space Between ㉮